



제7회 간호대상 수상 ... 김혜자 간호사 수녀 호스피스간호 정착과 발전에 헌신

▶ 제7회 간호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혜자 간호사 수녀에게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시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시상하는 '제7회 간호대상' 수상자로 호스피스간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김혜자 간호사 수녀가 선정됐다.

간호대상은 간호사로 평생을 간호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제7회 간호대상 시상식은 10월 30일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진행됐다.

김혜자 간호사 수녀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간호를 시행하고 그 가족들에게 사별간호를 실천함으로써 호스피스간호가 임상현장에서 확대되고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1988년부터 22년간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과장,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과장,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장 등을 지냈다. 임상현장에서 호스피스 병상을 도입하고, 호스피스간호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해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선진 호스피스간호를 도입하는 데 힘썼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한국호스피스안호의료연합회장 등을 지내면서 다학제간 호스피스 표준 매뉴얼 마련 등에 힘쓰고, 호스피스간호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호스피스 수가 개발 등 제도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에이즈 감염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송고한 사랑과 간호를 실천해왔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인간답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간호에 힘쓰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감사, 서울시간호사회 감사 등을 지냈다. 국무총리상, 유재라 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김혜자 간호사 수녀는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대한간호협회가 항상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면서 "간호사로서 늘 자긍심을 갖고 일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제3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 "차세대 글로벌 리더 키우는 데 힘 모으자"



▲ 재외한인간호사회 및 대한간호협회 임원들과 강석호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 왼쪽) 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 대한간호협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조명숙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 모니카 권 재외한인간호사회 이사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 (사진 오른쪽) 유분자 재외한인간호사회 명예회장이 환영만찬 담사를 통해 차세대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웠던 나라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발전했다"면서 "앞으로 해외 각지에서 한인간호사들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점이 돼 간호 발전에 더욱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대회를 통해 큰 화합의 시간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함께 참여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첫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회 대회를 맞이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뿌리 내리고 계신 덕분에 후배들이 견재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간호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는 한인간호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대독)은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간호사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면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의 성장 이면에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여와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그중에서도 재외한인간호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한인간호사들은 한인사회의 터전을 마련한 개척자이자 주류사회에서 한인인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관계개선에 앞장서는 민간사절단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계시는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연대강화 및 상생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며 주류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리 "재외동포사회에서 한인간호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전 세계 동포가 결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오영훈 기획이사 대독)은 "재외한인간호사대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인간호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의 장으로써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간호사들은 해외이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고, 국제사회에서 전문성과 성실성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모국 방문기간이 좋은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명숙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은 담사를 통해 "재외한인간호사회는 전 세계 한인간호사의 중심점이자 소통과 교류의 중요한 창구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세대교체 등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과 적응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한인간호사 리더들이 열린 사고와 전문성으로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의 길을 넓히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글로벌 봉사 리더십을 발휘하자"면서 "세계 간호역사를 주도해 나갈 차세대 간호사들이 나오도록 지원하자"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모니카 권 재외한인간호사회 이사장은 "재외한인간호사들의 역할과 기대" 주제강연을 통해 "재외한인간호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세대 간호사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본대회에 앞서 10월 29일에는 대한간호협회 초청 환영만찬이 63빌딩에서 열렸다. 재외한인간호사회 각 지역 대표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권철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박영우 당연직 부회장, 손혜숙 상근이사가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귀중한 시간을 내서 고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 감사하다"면서 "후배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대한간호협회는 재외한인간호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분자 재외한인간호사회 명예회장은 담사를 통해 "우리는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 먼 길을 달려왔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해외로 이주한 한인간호사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세계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차세대 간호사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해 한인간호사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라며 "한마음으로 뭉쳐서 화합하고, 우리의 뿌리는 한인간호사이며 대한간호협회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외한인간호사회가 해야 할 일은 차세대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한인간호사들을 이어주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할을 해야 하며, 멋진 선배가 되자"고 말했다.

모니카 권 재외한인간호사회 이사장은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200여명 고국 방문

간호정책 선포식 참여 ... 간호법 제정 한미음 응원

제3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대한간호협회 주최, 재외한인간호사회 주관으로 10월 29일~11월 1일 서울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했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218명의 한인간호사들이 고국을 찾아왔다.

...재외한인간호사대회 본행사는 10월 3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시는 한인간호사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2011년부터 4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세계 한인간호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과 문화교류는 물론 차세대 간호사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

한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된 세계 간호사의 해이며, 간호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무대에서 재외한인간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시길 바라며, 대한간호협회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모국을 방문하신 한인간호사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면서 "여러분은 한국 간호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더 큰 세계로 진출하는 데 초석을 다진 민간외교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과거에

